

# 종책질의했다고 주먹다짐 해서야

심우 스님, 해인사·무량정사건 질의한 제정 스님 폭행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종책질의를 문제 삼아 한 종회의원스님이 다른 의원스님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우 스님은 11월 4일 오전 본회의 직후 해인사 임회 및 무량정사 현안에 관련한 종책질의를 문제 삼아 제정 스님을 폭행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종회 의장 보선)는 11월 8일 종회 속개에 앞서 회의를 열고 4일 종회 종책질의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앙종회 종책모임 종진의원들과 회의를 통해 "이번 일을 야기한 심우 스님은 급변 회기를 비롯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앙종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결의했다"며 "상대편인 제정 스님도 이번 회기에 종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해인사 임회 개최 건 및 무량정사 관련된 현안을 중앙종회 총무부와 위원회에서 조사해 내년 3월 종회에서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심우 스님은 "종회의원스님들에게 누를 끼친 점을 참회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제정 스님은 "심우 스님의 참회를 수용한다. 향후 종책질의에서 폭력 등 물의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9일 열린 제187차 임시종회에서 제정 스님이 해인사의 남양주 무량정사 무상증여 건과 관련한 재무부 종책질의에서 시작했다.

제정 스님은 "해인사가 공찰인 남양주 무량정사를 교구 재적승도 아닌 특정 스님에게 무상증여했다"며 "8월 13일 해인사 임회에서는 무량정사를 매매하겠다고 하고는 어떻게 총무원에는 무상증여로 넘기겠다고 승인 신청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우 스님은 4일 오전 회의 직후 제정 스님에게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제정 스님의 팔 등을 가격했다.



사태를 참회하는 심우 스님



참회를 받아들이는 제정 스님

해인사는 제정 스님에게 불참 시

산문출송시킴과 임회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후)는 10일 성명을 내고 종회의원 품위를 훼손한 심우 스님의 제명 및 모든 공직 사퇴를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코엑스 증축 철회

범음 스님, 박원순 시장에 서한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범음 스님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봉은사 앞 코엑스 건물의 증축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11월 7일 발송했다. 스님은 강남구청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추진하는 코엑스 건물 증축이 역사문화도량인 봉은사를 위협하는 '폭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음 스님은 "봉은사 전면에 39층 초대형 빌딩을 신축한다면 역사문화도량에 대한 보호의 의무와 가치를 외면한 우리의 몰상식성과 천박함, 빈곤한 반인문성을 내외에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건물이 고층화된다면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문화와 예술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심미적 가치가 향상되고 소중한 것들이 잘 지켜지며 삶의 질이 향상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코엑스건물의 고층화는 중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④

## 두 마리 사자가 전하는 천년의 빛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報恩 法住寺 雙獅子 石燈) 국보 제5호

통일신라/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법주사



법주사 쌍사자 석등(국보 제5호·사진)은 국내 대표적 쌍사자 석등으로 사자를 조각한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조각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각기법이 우수해 통일신라시대 대표적 사자 조각 석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마리의 사자가 앞발을 높이 치켜들고 화사석(火舍石)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석등(石燈)은 절이나 능묘·정원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등기(燈器)를 말한다. 석등이 세워진 시기는 성덕왕 19년(720)으로 추측된다.

신라의 석등이 8각 기둥을 주로 사용하던 것에 비해 두 마리의 사자가 이를 대신한 디자인은 당시로는 획기적인 시도였을 것이다. 이 석등을 쫓아 통일신라는 물론 후대에 가서도 이를 모델로 따르는 유물들이 다수 발견된다. 석등의 높이는 3.3m에 달하며 불을 밝혀두는 화사석은 8각으로 높직하고, 네

곳에 창을 내어 불빛이 새어나오도록 했다.

2003년 정밀조사 결과, 화사석 균열과 사자조각의 표면 박락 현상이 지속 관찰됐다. 2005년 재조사 결과에서도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충북 보은군은 1억5000여 만원을 투입해 쌍사자 석등의 해체, 균열부위 접합, 세척, 경화처리 등 보존처리작업을 완료했다.

복원이 완료 돼 우리 곁으로 돌아온 쌍사자 석등, 법주사를 밝혀온 1000년의 시간만큼 앞으로 우리 곁에서 중생의 무명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 내년도 예산 총무원안대로 통과

제188회 정기총회서, 질의 한 건 뿐... '만장일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11월 8일 불기 2556(2012)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종법 제개정, 위원 선출, 결의문 채택 등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88회 정기총회를 폐회했다.

7일까지 진행된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에 이어 8일 속개된 정기총회에서는 총무보고와 종책질의가 6시간 여 이어지며 위원 선출, 결의문 채택 등을 처리했다.

관리사장이었던 서울 약사사 직영사찰 지정의 건은 논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우·덕관 스님을 선출했다. 동국대 이사 후보로 일민·정범·성타·종성·삼보·도완 스님의 추천을 동의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후보로 탄웅 스님과 백영식 前 인천불교대학 교수 등을 추천 동의했다.

중앙종회는 폐회에 앞서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부산 금정산 관동 터널 공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의례 한글화 과정으로 진행 중인 한글 칠정례와 한글 <천수경>은 주

가 논의키로 했다. 초심호계위원은 피추천자가 없어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지난 제187회 임시 총회에서 이월된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중앙종회 결의문'은 총무원과 행정안전부간의 협의 진행사항을 지켜보기로 했다.

2012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인 일반회계 221억 5567만 8000원, 특별회계 193억 1453만 40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3억 1587만 원(1.45%), 87억 7351만원(83.2%)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12년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기념사업과 이에 따른 각종 행사 지원비, 승려복지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 증가(40억원)의 요인이 크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총무원이 작성한 종회 예산안에 대해 장명 스님만이 결사추진본부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을 뿐 다른 의원스님들로부터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원안통과됐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파주 보광사 토지사용 계약 재조사

종회 종책질의서 계약서 사본 드러나, 특별감사 요청

파주 보광사가 종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찰소유지를 교회에 임대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보광사는 6월 종단 기체 승인을 전제로 새문안교회와 사찰 토지 사용에 관한 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총무원의 미승인으로 계약이 파기됐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종단 승인을 전제로 원본 파기에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사본 계약서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특별재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11월 8일 열린 제188회 정기총회 종책질의에서 종회의원 정산 스님은 재무부장 도문 스님에게 "보광사가 원본과 다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문 스님은 "현재 보광사가 계약서 원본을 봉선사에 제출해놓았으며 공사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문 스님은 "오늘 사본과 다른 계약서가 확인됐는데 '사본은 원본과 같고 이를 회수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감사 기관 행위로도 판단된다. 이에 보광사에 대한 특별재감사를 총무원과 본사

합동으로 진행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도문 스님은 이어 "공사 허가를 우려해 파주시에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 계약 공개를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신이 왔다"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3개월 전 사건으로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조치가 늦다. 현 주지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회의원 덕수 스님은 "어제 보광

사에 갔는데 10월 28일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도로가 이미 개설돼 컨테이너로 막아 놓은 상태였다. 인근 마을 이장은 공사 목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까지 떠돌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흥 스님도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었다. 서둘러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파주 보광사 총무 감진 스님은 "보광사 차원에서 현재 실무적으로 길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면 계약서 여부는 실무자가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 금정터널 철회...보존대책 마련 촉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11월 8일 금정산 관동 터널공사의 전면 중단을 결의하고 당국의 금정산 보존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중앙종회는 '금정산 관동 터널공사 반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민족영산 금정산 관동 터널 공사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훼손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감사 기관 행위로도 판단된다. 이에 보광사에 대한 특별재감사를 총무원과 본사

계 주장했다. 금정산 터널은 김해 진례를 기점으로 부산 기장군을 종점으로 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중 9공구 구간으로 11월 착공해 내년 초 본 공사에 들어간다.

교계에서는 7.42km 통과하는 폭 50m의 4차선 터널이 범어사와는 1200m, 내원암, 청련암과는 890m 떨어져 있어 금정산 파괴와 수행환경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박규원 만평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 제 9·10대 회장 이취임법회

### 미래를 향한 도약

### 전국비구니회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일 시 : 불기2555(2011)년 11월 21일(월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대법당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문 의 : 02)3411-8103~4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취임법회 준비위원회